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 주일오전설교 | 사도 바울의 기도

[골 1:9] 이로써 우리도 들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첫째로, 그는 그들이 모든 영적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였다. ‘아는 것’이라는 원어는 ‘정확하게 아는 것’을 가리킨다. 무슨 일이든지, 먼저 그 일에 대해 알아야 잘 할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가 죄인들을 위해 구주를 보내셨고 구주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속죄 사역을 이루셨고 사람이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되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세상적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의 모든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둘째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주께 합당히 행하기를 기도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수 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배우며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하는 것은 그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이다. 지식은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우리가 그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에게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실 것이며, 우리가 계속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진노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

쁘시게 하되, 범사에 또한 온전히 기쁘시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그의 명령은 사람의 행복과 유익을 위하여 짓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악은 피조물에게서 나왔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선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에베소서 2:10,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디도서 2: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救贖)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의 요지는 첫째,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과, 둘째,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기도의 내용은 처음 내용에 대한 보충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좀 필요한 일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적 훈련 과정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또 더 깊이 아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18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라”고 교훈하였다.

[11절]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딜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셋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오래 참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였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역사상 종종 그의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힘의 원천이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 곧 그의 전능(全能)으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기를 구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힘이 필요하다. 이것은 육신적인 힘

뿐만 아니라, 또한 정신적인 힘을 가리킨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것이다.

힘의 유익은 참음에서 나타난다. 힘이 있는 자만이 잘 참을 수 있다. 그런 힘이 없는 자는 조금 참다가 낙심하거나 스스로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가진 자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넷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기를 기도하였다. 그는 그들의 구원을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일로 표현하였다. 어둠은 무지와 부도덕과 죽음을 가리킨다. 그것은 현재의 세상과 장래의 지옥의 모습이다. 그러나 빛은 지식과 의와 생명을 가리킨다. 그것은 현재 참된 교회와 장래의 영광스런 천국의 모습이다. 성도의 기업은 천국을 가리킨다. 마태복음 25:34에 보면, 주께서는 의인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그 기업을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표현하였다(벧전 1:4). 우리는 구원 얻는 많은 자들 중에 속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법적으로 그 기업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법적으로 정당하게 그 기업을 얻게 하셨다.

**[13-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救贖),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흑암의 권세’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가리킨다. 죄인들은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탄의 권세 아래 살고 있다. 우리는 과거에 거기서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혹은 ‘그의 사랑의 표시로 주신 아들’이라는 뜻일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그 나라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의 가까움을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마 4:17), 그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제자들 가운데 임하였음을 말씀하셨다(눅 17:20-21). 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9는 신약 성도들을 ‘거룩한 나라’라고 불렀다.

‘건져내사’라는 말과 ‘옮기셨으니’라는 말은 원어에서 단순과거시제로서 그 사실이 단번에 이루어진 과거의 사실임을 나타낸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고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중생(重生), 곧 거듭남은 반복되지 않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은 자들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요 5:24).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곧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이었다.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救贖) 곧 죄사함을 얻었다. ‘구속(救贖)’이라는 말은 죄값을 지불하고 죄의 속박 즉 죄의 가책과 공포와 정죄와 형벌에서 해방시킨다는 뜻이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의 죄책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구속(救贖) 혹은 속죄는 죄사함을 가리킨다. 기독교의 구원은 죄사함을 가리킨다. 복음은 죄사함의 방법을 제시하는 소식이다. ‘얻었다는 말(에코멘)’은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성도들이 죄사함의 구원을 현재 소유하고 있음을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무슨 일든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인생의 정로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의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살 수 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선한 행위와 삶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다 선한 것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힘쓰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어떠한 고난에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신앙생활에는 지식과 행위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고난 중에 낙심

하며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고난에도 참고 견딜 수 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음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세계, 즉 지식과 의와 기쁨의 세계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한다.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는 없다.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은 허무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장차 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큰 구원을 얻었다.

**주일오후설교**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

[계 6:9-11]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伸冤)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어린양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사도 요한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탄원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었고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 몸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진 12:7).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즉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순교한 자들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다더라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마 10:28).

신앙의 핍박과 순교는 종말의 징조이며 대환난 시대의 한 특징이다. 물론, 경건한 자는 항상 핍박을 각오해야 했다.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했다(딤후 3:12). 그러나 주의 재림 직전에 특히 그러할 것이다. 주께서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다”고 말씀하

셨다(마 24:9-10).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한 짐승에 대해 “[저기]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증거했는데(계 13:7) 그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며, 또 그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도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밋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예언하였다(계 13:15).

순교자들의 영혼들은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탄원하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보응하신다는 도덕 질서를 위하여 또 기독교가 참된 진리임을 변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또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탄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는 그 핍박자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으로 말미암은 성결과 의를 상징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동료 종들과 형제들이 순교하기까지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하셨다. 비록 순교자들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간청하는 기도가 있었지만 또한 참된 안식도 있을 것이다. ‘잠시 동안’이라는 말은 사람의 시간표의 수천년도 하나님 앞에서는 잠시에 불과함을 보인다(벧후 3:8).

다섯째 인의 환상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순교자들이 더 있을 것을 보인다. 교회 역사상 초대교회로부터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 로마 제국 시대와 중세의 천주교회 시대, 일제시대와 공산 치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역사상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마지막 심판 때 전까지 순교자들의 죽음은 더 있을 것이다.

[12-14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總膽)모직부대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어린양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사도 요한은 큰 지진과 천체의 큰 변동을 보았다. 해는 총담같이 검어졌다. ‘총담’은 털실로 짠 거무스름한 부대자루를 가리킨다. 달은 피같이 되고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 실익은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졌다.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갔고 각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이런 묘사는 극심한 천재 지변을 나타낸다. 큰 지진들과 천재지변들은 종말의 한 징조라는 사실이 계시된 것이다.

천재지변들은 세상의 종말과 주의 재림 직전의 한 징조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께서는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말씀하셨다(마 24:29). 요한계시록 8:12에도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침을 받아 그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니 낮 삼분의 일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고 예언되어 있다.

특히 큰 지진들은 세상의 종말과 주의 재림 직전의 한 징조이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지진들이 세상 종말과 자신의 재림 직전의 한 징조일 것을 말씀하셨다(마 24:7). 또 요한계시록 11:13은 두 증인의 승천 후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명이라고 증거하였고 요한계시록 16:17-20은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큰 지진이 있어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또 큰 우박이 있을 것이라고 증거한다. 큰 지진의 힘은 약 1억 8천만 톤의 티엔티(TNT) 폭탄과 같으며, 그것은 1945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용되었던 원자폭탄의 약 만 배의 위력이라고 한다.

월드북 사전에 의하면, 역사상 대지진들이 간혹 있었지만, 20세기에 들어와 더 빈번해졌다. 20세기에 5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지진들은 24개 이상이 되며, 그 중에 2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것은 14개나 된다. 5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큰 지진만 열거해본다면, 1908년 이탈리아 멧시나 7만 5천명, 1920년 중국 중앙부 간서 20만명, 1923년 일본 도오코-요코하마 약 14만 3천명, 1932년 중국 중앙부 7만명, 1935년 인도 쿠에타(오늘날의 파키스탄) 6만명, 1970년 페루 침보테 약 6만 8천명, 1976년 중국 북동부 헤베이 24만명 등이다.

[15-17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비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그의(전통본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평소에는 담대하고 때때로 교만하기까지 한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대환난의 날에 두려워

떨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양의 진노를 피할 곳을 찾기에 급급할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 날에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고 말했었다(사 2:19). 대환난은 어린양의 진노의 큰 날이다. 이때에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을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은 핍박과 순교와, 큰 지진의 징조를 나타낸다. 이 세상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참된 신앙에 대한 핍박이 있고 순교도 있을 것이며 또 큰 지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징조들을 볼 때 성경의 예언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또 고난과 핍박과 순교도 각오하며 역사적 기독교 신앙 곧 성경적 신앙, 옛신앙을 굳게 지켜야 한다. 창조자, 섭리자, 살야게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경의 교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선하고 진실하게만 살아가야 한다.

### 수요일 설교 |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비의 환상

[속 5:1-11] 내가 다시 눈을 뜨즉 날아가는 . . . .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되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된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이며 죄의 값은 자신과 온 가족과 나라의 멸망이다. 율법이나 복음이나 비슷하다. 마태복음 7:21; 요한복음 3:36; 롬 8:13 등도 그러하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를 신약 성도들도 죄를 멀리하고 의와 선만 행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기셨다.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의 멸망은 그들의 우상숭배와 부도덕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지만, 또 그 징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제거하시는 뜻도 보이셨다고 본다. 구약 율법에는 그런 진리가 증거되어 있었다. 속죄일의 아사셀 염소의 규례. 스가랴 3:9; 다니엘 9:24 등이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롬 3:24).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히 10:10)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히 10:14).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엡 2:8).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의롭다 하심의 복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이제 믿음 안에서 의와 선만 행해야 한다.